

10. 죄와 하느님의 자비

죄의식의 상실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곧 무관심으로 인한 하느님 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에 대한 그분의 자비의 표현이며, “사랑이 죄보다 강하다”는 사실의 표현입니다. 자비는 삶의 길에서 만나는 형제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근본 법칙입니다.

자비의 신비

우리 문명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의 모습에는 그리 가볍지 않은 그림자와 흔들림도 함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계가 겪고 있는 불균형은 인간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또 다른 근본적 불균형과 연결되어 있기”[1]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합니다. 악과 고통과 불의에 응답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많은 태도 속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드리는 탄원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에서 비롯된 일종의 비난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과 고통의 경험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정당화된 길이 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고통을 죄인에게 내리는 신적 벌로 여기기까지 하며, 이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처럼, “현대인이 겪고 있는 드라마의 핵심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의식의 상실”[2]입니다. 하느님은 이제 무의미해 보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의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분명히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시하는 구원은 더더욱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소외가 낳는 궁극적인 결과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에 나아갈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식의 상실은 구원의 필요성의 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곧 무관심에 의한 하느님 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속화에 굴복한 인간의 양심이 자비라는 말의 의미를 잃어갈수록, 교회는 자비하신 하느님을 선포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는 바로 이 말 안에서 그 종합을 발견하는 듯합니다. 복음화의 사명이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악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하고 참된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3]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십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그 원인이자 희생자가 되는 악에 부과된 한계가 결국 하느님의 자비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4]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에 대한 그분 자비의 표현이며, “사랑이 죄보다, 죽음과 모든 악보다 강하다”[5]는 사실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비를 청할 때에만 전쟁과 폭력을 넘어서는 평화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6]

세상 안에 존재하는 악의 명백함에 응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악은 문제가 아니라 신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신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풀리지 않고, 오직 삶의 자세, 실존적 자세를 통해서만 풀리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비의 신비—고통과 불의와 죄,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라는 신비—를 관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7], 자비는 삶의 길에서 만나는 형제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근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최후의, 지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하느님과 인간을 잇는 길입니다.

교회의 삶 안에서 자비는 항구한 실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강렬하게 자비에 눈길을 고정하도록 부르심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는 자비로부터 이해된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선하시며 그분의 모든 업적도 선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통의 경험과, 자연계의 — 피조물 고유의 한계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 악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윤리적인 악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85 항). “죄는 인간 역사 안에 현존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 모호한 실재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86 항). 그러나 악, 특히 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려면 하느님의 신비에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법의 신비’(2 테살 2,7)는 오로지 ‘신앙의 신비’(1 티모 3,16)의 빛 안에서만 밝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의 계시는 악의 만연함과 은총의 넘쳐흐름을 동시에 보여 주었습니다(참조. 로마 5,20).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기원 문제를 숙고할 때, 악을 홀로 정복하신 그분께 우리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야 합니다(참조. 루카 11,21-22; 요한 16,11; 1 요한 3,8)”(《가톨릭교회 교리서》, 385 항).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하듯이, 우리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 채 하느님을 아는 것은 기만이며, 구속자를 모른 채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만입니다.[8]

이러한 *인간과 하느님의 깊은 유대*로부터 우리는, 죄란 하느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386 항).

죄의 실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계시의 빛은 특별히 기원의 죄에 관해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느님의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원죄: 신앙의 본질적 진리

“원죄 교리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의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야기(창세 3 장)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 역사의 시초에 일어난 원초적 사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참조. «사목헌장», 13 항 1). 계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첫 조상들이 자유로이 범한 원죄가 온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앙의 확신을 줍니다(참조. 트리엔트 공의회: DS 1513; 비오 12 세, «인류», DS 3897; 바오로 6 세, 1966 년 7 월 11 일 연설)”(«가톨릭교회 교리서», 388-389 항).

“우리의 첫 조상들이 불순명을 선택하게 된 배후에는, 시기심 때문에 그들을 죽음에 빠지게 한(참조. 지혜 2,24) 하느님을 거스르는 유혹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참조. 창세 3,1-5).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그 목소리에서 사탄 또는 악마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를 봅니다(참조. 요한 8,44; 묵시 12,9). 교회는 그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다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91 항).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버려두었으며(참조. 창세 3,1-11),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첫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참조. 로마 5,19). 그 뒤로 모든 죄는 하느님에 대한 하나의 불순종이 되고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될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97 항).

“성경은 이러한 첫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곧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습니다(참조. 로마 3,23). 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권에 집착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참조. 창세 3,5)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참조. 창세 3,9-10)”(«가톨릭교회 교리서», 399 항).

그 결과, “원초적 의로움 안에서 그들이 누리던 조화는 파괴되었고, 육체에 대한 영혼의 영적 지배력이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참조. 창세 3,7),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갈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참조. 창세 3,11-13). 그들의 관계는 탐욕과 지배욕으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참조. 창세 3,16)”(《가톨릭교회 교리서》, 400 항).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 역시 깨졌습니다. “보이는 피조물은 인간에게 낮설고 적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참조. 창세 3,17.19). 인간 때문에 피조물은 ‘멸망의 종살이에’(로마 8,21) 매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불순종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예고된 결과(참조. 창세 2,17)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창세 3,19). 죽음이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참조. 로마 5,12)”(《가톨릭교회 교리서》, 400 항).

“이 첫 죄로부터 참된 죄의 범람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 살해(참조. 창세 4,3-15), 죄로 말미암은 전반적인 타락(참조. 창세 6,5.12; 로마 1,18-32),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무엇보다 계약의 하느님께 대한 불충실과 모세 율법의 위반으로서 죄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는 무수히 나타납니다(참조. 1 코린 1-6; 묵시 2-3)”(《가톨릭교회 교리서》, 401 항).

원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결과

인간의 실존은 우리 삶 속에 죄가 현존한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동시에, 죄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악을 향한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악은 인간의 구조에 속하지 않으며,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서도, 그의 물질성에서도 나오지 않고, 물론 하느님이나 움직일 수 없는 운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실재론은 인간을 그 자신의 고유한 책임 앞에 세웁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 열매로서 악을 행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387 항).

“하느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인간이 제 마음을 살펴볼 때, 선하신 창조주에게서 올 수 없는 악에 기울어져 있고 수많은 죄악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흔히 하느님을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당연한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를 깨트려 버렸습니다”(《사목헌장》, 13 항 1).

역사를 통틀어 교회는 과장된 낙관주의와 실존적 비관주의에 맞서 원죄 교리를 정립해 왔습니다(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406 항). 인간이 오직 자신의 자연적인 힘만으로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은총은 단지 외적인 도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로써 아담의 죄의 범위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각각 단순한 악한 예와 선한 예로

축소시켜 최소화한 펠라지우스에 맞서, 성 아우구스티노를 따르는 카르타고 공의회(418 년)는 인간이 죄 이후 손상되었으므로 은총의 절대적 우선성을 가르쳤습니다(참조. DH 223.227; 참조. 또한 529 년 제 2 차 오랑주 공의회: DH 371-372). 죄 이후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 본질적으로 부패했으며 자유는 소멸되었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죄가 있다고 주장한 루터에 맞서, 트리엔트 공의회(1546 년)는 원죄를 지워 없애는 세례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그 여파—그중에서도 욕정—는 남아 있지만, 루터처럼 이를 죄 자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있어 자유롭고 은총의 도움으로 선행을 통해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참조. DH 1511-1515).

루터의 입장 밀바탕에는, 그리고 창세기 3 장에 대한 몇몇 최근의 해석들 밀바탕에도, 1) 본성과 역사, 2) 심리적-실존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 3) 개별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결려 있습니다.

1) 창세기에는 신화적 성격을 지닌 몇몇 요소가 있지만(여기서 “신화”라는 개념을 가장 좋은 의미로, 즉 기원을 놓고 그러므로 이후 역사의 토대가 되는 이야기-말씀으로 이해한다면), 타락 이야기를 인간이 본디부터 죄에 물들어 있는 조건에 대한 상징적 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 사실을 본성으로 바꾸어 버려, 그것을 신화화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죄의식은 오히려 죄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것은, 죄의 조건이 인간의 역사성에 속하는 것이지 그의 원초적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세례 이후에도 죄의 여파가 남아 있으므로, 성인들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악을 향한 경향을 강하게 체험하며 자신을 깊이 죄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존적 관점이 유일한 것도, 가장 근본적인 것도 아닙니다. 세례가 실제로 원죄를 지워 없애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405 항). 존재론적으로 은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루터는 실존적 관점을 급진화하여 모든 실재를 그 관점에서 이해하였고, 그리하여 그 실재는 존재론적으로 죄로 각인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3) 세 번째 논점은 원죄의 전달이라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가톨릭교회 교리서》, 404 항)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첫 조상들이 죄를 온 인류에게 전달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의 다음 장들(참조. 창세

4-11 장;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401 항)은 인류의 점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의 평행 관계를 세우면서, 성 바오로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로마 5,19). 이 평행 관계는 “아다마”라는 낱말을 집합적 단수로 이해하는 통상적인 해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듯이, 아담도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머리인 것입니다. “이 ‘인류의 단일성’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관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404 항).

교회는 첫 조상들의 원죄와 인류가 물려받은 죄를 유비적으로 이해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개인의 죄를 지었지만, 이 죄는 [...] 온 인류에게 번식을 통하여, 곧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하여 전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원죄를 유비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깊어진’ 죄이며,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404 항). 이렇게 “원죄는 비록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담의 어떤 후손에게도 개인의 잘못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는 않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405 항).

어떤 이들에게는 물려받은 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11] 특히 인격과 자유에 대해 개인주의적 시각을 지닌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아담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다른 이들의 죄의 결과를 내가 치러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참된 연대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결여 자체가 각 사람에게 전달된 죄의 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원죄는 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인류의 깊은 형제애에 대한 이해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애석한 결과와 그 보편적 확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서는 첫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대 레오 성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은 마귀가 질투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강론 73,4). 그리고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더 큰 선을 이루어 내시고자 악을 허락하십니다. 이 때문에 바오로 성인은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로마 5,20)라고 말했으며, 부활 찬송(엑술텟)은 «오, 복된 탓이여, 너로 인하여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라고 노래합니다»(«신학대전», III, 1, 3, ad 3)»(«가톨릭교회 교리서», 412 항).

삶은 투쟁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죄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은 세상 안에서 인간의 상황과 그의 행위에 대해 명석한 실재론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위대함과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의식해야 합니다. 이 실재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a) 순진한 낙관주의와 절망적인 비관주의를 모두 예방하며, “세상 안에서 인간의 상황과 그의 행위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 인간이 손상되어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 활동, 그리고 도덕 분야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407 항).

b) 창조주이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잔잔한 신뢰를 줍니다. 그분은 당신 피조물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며, 온갖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을 향해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한 것이다(omnia in bonum)!’ 하고 되뇌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이것이 바른 결론입니다—, 그토록 힘겹게 느껴지는 그 일을 달콤한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12]

c) 깊은 겸손의 자세를 불러일으켜, 자신의 죄를 놀라지 않고 인정하며, 그것이 개인적인 결함이기보다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파하게 합니다.

d) 인간 본성 그 자체에 고유한 것과,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상처의 결과로 생겨난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투쟁의 성격을 지닙니다. 인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처신하려면 투쟁이 필요합니다(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409 항). “교회의 모든 전승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대(밀리테스 크리스티, milites Christi)’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나쁜 성향들과 쉬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로 가져다주는 군대입니다.”[13] 죄를 피하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고 선한 삶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율적인 자유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만 한다는, 결국 죄 없는 삶은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에 맞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모습이 우뚝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이 권태를 낳기는커녕 빛과 무한한 놀라움으로 가득 찬 모험이 됨을 보여 줍니다.[14]

하느님의 다정하심: 죄, 구원, 자비

죄의 현실 앞에 하느님의 자비가 위풍당당하게 우뚝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비의 얼굴이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에서, 자캐오, 중풍 병자, 간음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 착한 강도,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에게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되찾은 아들의 비유와 같은 자비의 비유에서 이는 특별하게 드러나며, 이 비유들은 실로 “자비하고 너그러우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탈출 34,6) 하느님에 대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완성으로 이끕니다. 시편들도 거듭거듭 이를 노래합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는”(시편 86,15) 분이시며,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는”(시편 103,8) 분이시며, “너그럽고 의로우신, 저희 하느님은 자비하신”(시편 116,5) 분이시며,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는”(시편 145,8)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수난 안에서 온 세상의 더러움이 한없이 순수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과 접촉합니다.[15] 보통은 더러운 것이 순수한 것과 접촉하면 그것을 오염시키고 물들이지만, 여기서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이 그 온갖 불의와 그것을 오염시키는 잔혹함과 더불어 한없이 순수하신 분과 접촉하는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더러움은 참으로 흡수되고 무효화되며 무한한 사랑을 통해 변모됩니다.

세상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하느님의 모습을 오염시키는 악과 불의라는 실재는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저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느님께서 잔인하게 무한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화해의 자리가 되어 주시고, 당신 아드님 안에서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의 무한한 순수함을 선물로 세상 안에 도입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온갖 끔찍한 것의 “잔”을 마시고, 그리하여 고통을 통해 어둠을 변모시키는 당신 사랑의 위대함으로 정의를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중에 온 힘을 다해 아버지께 부르짖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된 모든 시대 인류의 온갖 불행과 온 구원의 역사에 걸친 모든 간구와 전구가 강생하신 말씀의 이 외침 안에 모아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시고, 모든 희망을 넘어, 당신 아드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 외침을 들어주십니다.”[16] 이 고통은 인간의 비참함과 죄와 죽음, 곧 역사의 모든 악을 응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구속하며,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사랑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하느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주일의 새벽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17]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파블로 마르티 델 모랄 - 산티아고 산스

참고 문헌

«가톨릭교회 교리서», 374-421 항.

성 요한 바오로 2 세, «저는 성부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신경에 관한 교리교육 (I)», 팔라브라, 마드리드 1996 년, 219 쪽 이하.

프란치스코, «자비의 얼굴», 2015 년 4 월 11 일.

각주

[1]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10 항.

[2] 성 요한 바오로 2 세, «생명의 복음», 21 항.

[3] 참조.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회의 선교 사명», 44 항.

[4] 성 요한 바오로 2 세, «기억과 정체성», 라 에스페라 데 로스 리브로스, 마드리드 2005 년, 73 쪽.

[5] 이러한 표현은 성 요한 바오로 2 세의 «자비로우신 하느님» 여러 대목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6] 성 파우스티나, «내 영혼 안의 하느님 자비 일기», 47, 309, 327, 949 항.

[7] 참조. 프란치스코, «자비의 얼굴», 2 항.

[8] B. 파스칼, «팡세», 556 항(브뤽슈빅 판) 및 449 항(라뤼마 판).

[9] (원문 누락—교회가 언제나 타락 이야기를 ... 관점에서 읽어 온 주된 이유임을 설명하는 각주로 추정되나, 스페인어 원문 자체가 이 지점에서 잘려 있습니다.)

[10] (원문 누락—전통적으로 근원적 원죄와 파생적 원죄를 구분해 온 것에 관한 각주로 추정되나, 스페인어 원문 자체가 이 지점에서 잘려 있습니다.)

[11] 참조. 성 요한 바오로 2 세, 일반 알현, 1986 년 9 월 24 일, 1 항.

[12] 성 호세마리아, «밭고랑», 127 항; 참조. 로마 8,28.

[13]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74 항.

[14] 참조. 베네딕토 16 세, 강론, 2005 년 12 월 8 일.

[15] 베네딕토 16 세, «나자렛 예수», 제 2 권, 269-270 쪽의 논평 참조.

[16] «가톨릭교회 교리서», 2606 항.

[17] 참조. 성 요한 바오로 2 세, «자비로우신 하느님», 7 항.